

# 새 마을 事業의 生產性과 그 影響 要因에 관한 實證的 研究

金 光 雄  
(助 教 授)

## 차 례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2. 理論的 背景
  - 2.1. 生產性의 概念
  - 2.2. 組織的 影響要因
  - 2.3. 理論틀
3. 資料의 分析
  - 3.1. 資料의 審集과 測定
  - 3.2. 資料의 解釋

##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새 마을 事業은 民族中興을 위한 綜合社會發展政策의 일환이다. 여기서 社會發展政策이라고 규명하는 것은 새 마을 運動이 農漁村을 對象으로 農漁民의 所得增大를 目標로 삼는 農業政策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運動은 보다 包括的인 의미를 지니고 民族 舊來의 非合理性에서 탈피하여 보다 노력하는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跳躍의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나아가 國家一般, 民族一體, 社會全般의 모든 改進이 그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廣義의 社會發展政策이 된다. 또한 유독 社會發展政策이라고 命名하는 다른 이유는 事業의 目標 自體가 發展과 그것이 결과하는 福祉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모두가 하나의 複合的 因子가 된다는 뜻에서 綜合的으로 認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새 마을 事業이 반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몇몇 斷面만이 부각된 物理的 의미가 보다 강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새 마을 運動을 보는 눈은 多角的이고 多樣하다. 그것은 보는 視點과 그 焦點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에는 새 마을 운동을 農業에 局限시켜近代化 過程에서 停滯되고 있는 諸要因을 分析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새 마을 운동의 필요성을 強調하는 경우가 있고,<sup>(1)</sup> 새 마을운동 그 자체에 대한 개념규정 보다는 農村社會의 回

生을 위한 道具를 分析하려는 입장도 있다.<sup>(2)</sup>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農村에서의 새마을 運動의 分析對象을 構造的 特性과 意識과 態度의 重層的作用에 두는 것도 있다.<sup>(3)</sup> 이들三者는 各己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또는 精神的 視角에서 새마을 事業을 分析하려는 입장에서 그 見解는 달리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새마을 事業을 社會全體發展의前提로 생각한다는 點에서 월자의 견해와一致한다고 하겠다.

어쨌든 「失意의 農村을 생기돋는 定着地로 만들기 위한 새마을 운동」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듯하다. 너무 크고 무거운 짐에 얹눌려 고식화되어 버린 農村의 原始옷을 벗기기 위하여 오랜 刻苦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見解는 새마을 운동과 결부시켜 農촌문제를 파헤쳐 본 몇가지 의견이다. 이를 통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을 의식하면서 새마을 개념규정을 토대로 이 研究는 새마을 事業의 生產性을 提高시키기 위해 그 영향요인을 組織論의 見地에서 分析해 보려는 것이다.

生產性은 물리的 物理的 의미이다. 그리고 經濟的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物理的이고 物質的 의미로만 生產性의 개념을 認知하지 않고 精神的이고 心理的인 面도 가미하여理解하려고 한다. 이 길이 곧 自助, 自立, 協同의 基調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새마을 事業의 基本理念에도 附合되는 것이며 동시에 事業 자체의 내용이 物理的인 改革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精神改造의 의도에도 맞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精神的 意味를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때로 觀念的이 되어 버리고 만다. 여기서는 되도록 그러한

(1) 朱奉圭 교수는 農業近代化의 問題點을 (1) 零細小農이 지배적인 家族經營의 형태, (2) 食糧不足에 따른 外穀導入, (3) 자본 장비의 빈약에 따른 農業生產性의 低位側面, (4) 農產物流通의 非合理化, (5) 農民의 主體意識의 결여 등에서 찾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치방으로 協業農, 生產技術의 개발, 資本供給, 새로운 品種改良 및 보급의 적극화와 畜가의 적정수준보장, 農業經營의 多角化 및 集約化를 통한 企業의合理화, 農產物市場性的高揚 및 계획성, 계산성과 合目的性을 基礎로 하는 기업가 정신 등을 들고 있다. “農業近代化의 問題點”, 「月刊中央」1972. 4. pp. 116-139.

(2) 「매스·콤」의 입장에서 農村問題를 분석한 李相禧 교수는 農村社會는 全體社會發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내세우고 「매스·콤」의 都市中心的 내용물이 農村社會에 挫折과 罷免, 불만과 도피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農村社會가 갖는 構造的 裝置에 대한 農民의 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그들이 갖는 政治的 무관심에서 서서히 짐을 깨기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매스·커뮤니케이션」 협상의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農村問題와 매스·콤의 役割”, 「世代」1941. 4. pp. 78-83.

(3) 農촌문제는 “農村社會의 構造的 特性과 農民 각자가 갖고 있는 意識과 態度의 重層의 인 작용에 근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金大煥 교수는 다분히 精神的 측면에서 본질구명을 하려는 입장인 듯하다. 零細的小農下에서 傳統的 社會構造가 重疊되는 봉쇄된 생활권에서 ‘고립되고 불충분한 잉여 노동력’의 흥수가 農民階層의 분해를 기형적으로 촉진시켰으며 農民의 부족한 自意識과 勞動倫理 등은 農촌의 미개한 단면을 쌓아 온데 불과하였다. 따라서 “과학적인 豫測이나 뚜렷한 歷史意識 없이 農村開發을 다만 즉흥적인 行政能率의 수단으로만 이룩하려는” 것 대신에 “스스로 자각하고 努力하고 협동”하려는 農民의 힘으로 農촌의 장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金교수는 지적한다. “農村社會의 後進의인 重層構造”, 「世代」1972. 4. pp. 96-103.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心理的側面을 고려하였으며 그래서生產性을測定할 때心理的滿足度를 흥나의 지표로設하였다.

이論文은 또한實證的分析을 시도한 연구이다. 그것은 새마을에 관한 많은資料와文獻이 발간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資料를集積整理한 것도 많고經驗的例示도 허다하다. 그러나 새마을事業의 生産성을 중심으로 한要因의分析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論者는 새마을사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生産성의 측면을分析하고자하여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가운데組織的인 측면을 선택하였으며 그것을經驗의世界에 투영하여實際資料를 가지고計量的으로分析하였다.

實際資料는 지난10月과11月에 걸쳐서江原, 忠南, 全北 및 慶北을選定하여 24個郡의內務課長과邑·面長, 그리고邑·面에서 일하는要員들을對象으로面接調查를 통해수집했다.

應答者 166名을 대상으로 하여 간단한調査表을 통해서얻은資料는回歸分析과度數分布表에 의해分析되었다.

이상의調查對象者가 선정된 이유는 뒤에도論據를 제시하겠지만프로그램의生產性을높이기위해서組織力의投入이 가장 중요한變數라고想定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욱이새마을사업이行政의강력한 뒷받침을받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그래서 새마을事業을一線에서主導하는郡의內務課長과邑·面長, 그리고농촌구석구석을찾아다니며새마을事業을위해渾身하는要員을통해사업의組織的영향요인을파악해내고자했던것이다. 그러나충분한여전이주어지지못했기때문에많은對象者를통해알아보지못했으며그런만큼그representativeness은아주미약하다고할수밖에없다. 그렇지만24個郡의內務課長을직접面接할수있었다는것은그런데로資料의信賴度를높이는데밀바침이되리라생각한다. 하느의試圖로생각하며보다外延을넓힐수있는기회는다음으로미루고자한다.

그러므로한마디로말해서이論文은(1)새마을事業의生产성을物理的인것뿐만이아니라清神的,心理的인 측면에서가름해본다는것,(2)생산성에영향을주는요인을行政組織的觀點에서고려해본다는것,(3)資料의蒐集을經驗的,實證的 측면에서행했다는것, 그리고(4)수집된資料는計量的으로分析했다는것이다.

이렇게해서分析된資料는우선은物理的의미가강할지도모른다. 그러나어디까지나이論文의 의도하는바는精神改革의 측면에 강점을두고명실공히광의의綜合社會發展政策으로서의새마을事業이結晶되기를기대한다는것을다시금강조한다.

## 2. 理論的背景

### 2.1. 生產性的概念

흔히生產性은經濟財나奉仕의決定因子로 이해되어公私政策을 막론하고政策의主要기

준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마디로 生產性을 論하는 것은 經濟原則에 입각한 費用과 效果의 比率에서 그 プラ스 요인을 높이자는 의도이다.

그래서 生產性(productivity)은 일종 能率性이라는 개념과 混用하기도 하는데 이 때의 能率性은 물론 동원된 資源이 낳는 產品으로서의 效果性에 직결된다. Jerome A. Mark에 의하면 生產性의 指標는 財貨나 奉仕와 같은 產出(output)에 대한 勞動·資本·에너지 등과 같은 投入(input)의 力度로 정의된다고 한다.<sup>(4)</sup> 따라서 生產性의 개념은 物理的이고 量의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또 可測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生產性의 개념은 또한 단순한 作業指標(work measurement)와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作業指標는 生産이 되어가는 각 過程에서의 活動을 의미하는 것으로 活動의 終極的 結果인 生產性과 다른 斷面的인 것이다.

生產性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두 가지 또 다른 見解가 있다. 하나는 產出에 영향을 미치는 投入을 逐個 分離하여 하나하나를 따져 보려는 個別的 分析의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複數의 投入을 동시에 고려하는 複合的 分析의 입장이다. 특히 후자는 예컨대 技術, 資源, 勞力, 管理 등을 統合하여 投入의 내용으로 想定하는 경우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의 產品이 나타나기 위해서 드리는 投入의 내용은 一回的이거나 斷片的일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生產性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效率性이 있고 成就(performance)가 있다. 效率性은 흔히 能率性과 效果性을 합친 개념으로 사용된다.<sup>(5)</sup> 能率性은 過程의 파라다임에서 연유한 것으로 “소여의 비용으로 큰 성과”를 내는 경우나 “적은 비용으로 소여의 성과”를 올리는 경우를 다 같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역시 投入-產出의 메카니즘에 입각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生產性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生產性은 過程에서의 活動인 作業指標와 구별된다고 지적했듯이 오히려 效果性의 개념과 근사하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效果性은 結果의 기준으로 James L. Price의 말대로 目標의 達成度(degree of goal achievement)를 의미하기 때문이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正確한 의미 파악을 하자면 역시 能率과 效果가 합친 生產性의 개념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은 過程과 結果가 分離되어 產物을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成就의 개념인데 效率性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소위 發展論者들이 즐겨 따지는 發展의 기초 요인으로, 하위 개념들이다. Fred W. Riggs에 의하면 廻折(diffraction)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分化(differentiation)과 成就(performance)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

(4) Jerome A. Mark, "Meanings and Measures of Productiv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XXXII, N. 6, 1972, pp.747-753.

(5) 朴東緒, 「韓國行政論」, 法文社, 1972, pp.69-70.

(6) James L. Pri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omewood: Irwin, 1968), pp.2-3.

는데, 이 가운데에서 그는 成就를 두 개의 次元으로 나누어 고찰한다.<sup>(7)</sup> 즉 하나는 단순히 세금을 기두어 들이고, 도로를 건설하고, 고용을 위한 직업을 보도하는 등 행정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느냐에 대한 정도만을 따져 보는 斷片의인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作業의 결과와 거기에 들인 에너지 投入까지를 비교해 보는 成果와 努力의 비율에 대한 次元이다. 後者가 다른 學者의 경우와 유사한 견해가 되겠다.

Riggs 교수는 이 둘에도 成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초 인자로 分極化(polarization), 公式性(formality), 合理主義(rationalism) 및 注入(introj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sup>(8)</sup> 分極化나 注入의 의미는 우리 말로 적합한 용어가 아닌듯 하나 그 뜻은 制度化를 위한 肯定的 + 否定的 제재의 비중과 價值를 學習하고 새로운 目標를 受容한다는 의미로 쓴다. 그리고 :公式性에서는 役割行態가 分明해져야 한다는 면이 강조되고 있고合理性에 관하여는 군더더기 설명이 요치 않을 것이다.

이상은 몇 학자를 통해 본 生產性 위주의 諸 개념들이다. 그 뜻은 비슷 비슷 하지만 사람에 따라 보는 눈이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 약간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우선 업격한 의미에서 生產性이라는 것은 成就 보다는 하위 개념이라는 것이고, 또한 投入과 產出, 혹은 過程과 結果라는 複數次元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주워깊게 다루어야 할 것은 生產性이나 成就가 物理的 혹은 物量的 요소 이외에 精神的・心理的 요소를 내재하여 兩側이 공히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생산성이나 성취를 저울질 하는 경우에 物量的인 것만을 測定하면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論文에서는 그래서 生產性을 投入과 產出의 매카니즘에서 그 比率을 보는데 새가을 운동에 들인 時間을 投入으로 보고 그로 인해 얻은 事業에 대한 滿足度를 產出로 보았다. 後者は 바로 앞서 지적한 이유에서 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 가지 참고로 보탤 것은 Gordon T. Yamada 가 美國聯邦政府의 管理效果를 높이려는 한 研究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成就의 指標에는 生產性(productivity), 奉仕(service), 質的인 것(quality) 및 費用(cost) 등이 들어 있다.<sup>(9)</sup> 生產性이 成就의 下位 개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 2.2 組織的 影響要因

生產性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資源으로 人的・物的인 것이 있고 技術이 있겠으며 또 人間의 努力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하여 이것을 組

(7) Fed W. Riggs, "Administrative Development: An Elusive Concept," in J.D. Montgomery and W.J. Siffin (eds.), *Approaches to Development: Politics, Administration and Change*. (New York: McGraw-Hill, 1966), pp.237-243.

(8) 前掲論文, pp.244-252.

(9) Gordon T. Yamada, "Improving Management Effectiveness in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XXXII, No. 6, 1972, p.767.

織的인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組織的 측면에서 보는 이는 비단 새마을 事業의 경우 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업에도 組織의 力動的 作用에 의해 任務가 수행된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行政的인 영향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 보다 크고 깊다.

組織的側面에서 어느 事業의 효과를 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는 경우 거기에는 (1) 組織의 構造와 過程 (2) 人的・物的資源, 그리고 (3) 組織의 特質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도 밝힌 바와 같이 組織 그 자체의 構造나 過程이라는一般的인 要因을 여기서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事業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組織的 特色을 보려는 것 이기 때문에 文은 세번째에 촛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組織의 特質 가운데 指導性, 意思疎通能力, 動機, 統制, 士氣, 參與性, 成就欲求 등을 보려는 것으로 이들이 事業의 生産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假說은 事業推進者의 指導性이 強하고 그의 成就動機나 意欲이 적극적이면 事業은 成功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住民들과의 의사소통, 또는 內部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사업추진이 용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決定作成過程의 參與를 위한 開放性이 生產性 提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위에 들은 假說 모두를 이런 方式으로 檢證하려는 것이 아니며 事業의 生產性에 어느 要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우선 알고자 하여 그 영향 요인을 찾아 보려는 것이다. 이것을 主로 回歸分析模型에 따라 紋明한다.

調查에서 實察로 想定했던 影響變數들은 (1) 住民相互間 및 官民間의 意思疎通ability, (2) 事業推進者的 潛在的 動機와 成就意欲, (3) 事業推進者的 指導性, (4) 事業內容決定에 대한 參與機會의 開放性 및 (5) 豫算과 技術로 限定시켰다. 다섯번째의 變數 역시 組織的 觀點에서 고려한 것이다.

### 2.3 理論

그리면 生產生의 개념을 投入과 產出의 比率이라는 전제아래 그 영향요인을 組織的 觀點에서 보고자 하는 경우에 개념간의 關係를 밝혀야 할 것이다. 때문에 生產性과 影響要因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새마을 事業을 추진하기 위한 政府의 政策이 決定되면 그 가운데에 目標가 천명되고 計劃이 세워지고 세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정해지면 이를 이끌어 갈 主務官廳으로 內務部斗 農水產部가 主軸이 되어 實施해 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行政部處는 主務부서로 權限이 주어지는 것이고 (authorized agents) 따라서 事業의 成敗는 主體의 構造와 過程(structure and process)에 우선 달리게 된다. 이 밖에 人的・物的資源에 관한 것과 組織의 特性에 관한 몇 가지가 事業의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한편 새마을 運動을 위해서는 政府의 行政組織만이 為主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 運

動을 展開해 나가는데 있어서 私的 組織의 役割이라는 것은 至大하다. 官民이 協同하고 住民 스스로가 돋는 自助의 精神에 입각한 住民의 活動은 行政組織 이상의 효과를 낸다. 다시 말하면 새마을 指導者의 價值觀이나 態度, 部落民間의 協同精神, 部落民의 意欲, 그 밖에 통털어 그 地域 고유의 特性과 여전 文化·傳統 등도 새마을 事業의 生産성 제고에 무시 못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私的 組織의 特性이나 그 活動까지를 여기서 고려의 對象으로 삼기는 너무 방대해져 어렵다.

그러나로 범위는 行政部處의 組織特性으로 축소된다. Rensis Likert는 組織의 特性을 調査하는 가운데 20點 尺度에 따른 資料蒐集을 위해 指導性, 動機, 意思疎通, 決定作成過程 및 成就度 등으로 나누어 變數를 설정하였다.<sup>(10)</sup> 이것은 물론 P. Blau의 경우도 비슷한 論據를 제시하고 있고,<sup>(11)</sup> D. Katz 와 R. Kahn의 主張 역시 마찬가지이므로<sup>(12)</sup> 모름지기 組織의 特性과 生產性을 結付시켜 前者가 後者の 영향요인이라고 할 때에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의견의 一致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로 組織의 生產性(事業의 効果)은 그 組織의 特性으로서의 諸要因들에 의해 一次의으로 영향을 받는다는前提 아래 앞서 지적한 다섯 가지의 變數들을 獨立變數로 생각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마지막의 豫算과 技術은 앞서 개진한 理論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事業의 生産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비록 組織自體의 特性은 아니지만 추가하였다.

따라서 전체의 模型은 다섯의 獨立變數 중 生產性이라는 從屬變數를 설명하기 위해 각己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 가를 알고 싶은 것이 研究의 第一義的 目的이므로 回歸分析模型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Y = a_1X_1 + a_2X_2 + a_3X_3 + a_4X_4 + a_5X_5$$

라는 模型이 성립되는데,

◦ 가서 Y: 生產性

X<sub>1</sub>: 住民相互間 및 官民間의 意思疎通圓滑

X<sub>2</sub>: 事業推進者의 積極的 動機와 成就意欲

X<sub>3</sub>: 事業推進者의 指導性

X<sub>4</sub>: 事業內容決定에 대한 參與機會의 開放性

(10) Rensis Likert, *Human Organization: Its Management and Value*, (New York: McGraw-Hill, 1967).

(11) Peter Blau, *The Dynamics of Bureaucracy: A Study of Interpersonal Relations in Two Government Agenc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5).

(12) Daniel Katz and Robert Kahn,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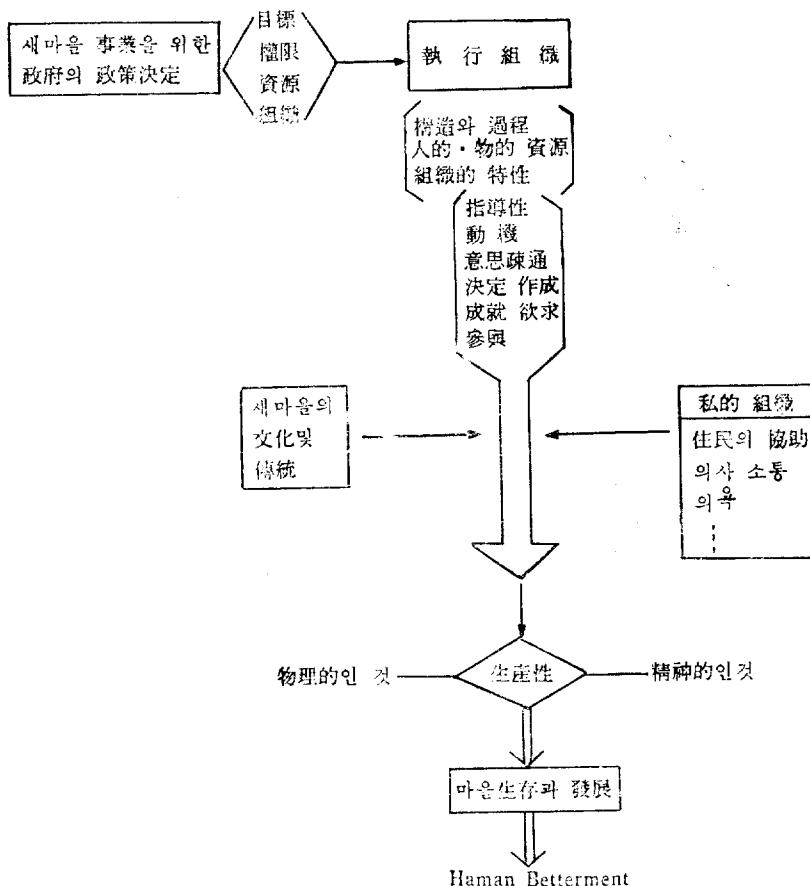
X : 豫算 및 技術

$a_1 - a_5$ : 各 變數의 因歸係數들

이상에 제시한 分析模型 以外에 지금까지 이 章에서 說明한 내용을 一括해서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圖表 1〉

概念的圖解



### 3. 資料의 分析

#### 3.1 資料의 菲集과 測定

理論을 검증하기 위한 資料의 菲集은 4個道(江原·忠南·全北·慶北), 24個郡을 對象으로 삼아 各郡의 內務課長·邑·面長 그리고 邑·面要員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調査의 時間과 그 밖의 여러 事情으로 많은 被面接者를 확보할 수 없어서 166名의 被面接者만을 對象으로 삼았다.

質問紙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主로 두 가지 커다란 것만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 하나

가 第 2 章에서 설명한 대로 影響變數의 比重을 알기 위한 問項이고, 다른 하나는 새마을 事業 自體의 내용이 物理・量的인 것에 치우쳤지만 앞으로는 精神的・心理的인 쪽으로도 努力 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内容을 알고자 하는 문항이었다.

이 외의 諸 問項은 基礎資料에 필요한 것으로例컨데 (1) 年齡 (2) 性別 (3) 職責 (4) 教育程度 (5) 故鄉與否 (6) 居住年限 등 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變數는 이들 밖에 生產性 的 指標를 알아 내는 것이었다.

生產生은 第 2 章의 概念정리에서 밝힌 대로 여러 가지의 投入과 그 產出의 比率인데 여기서 그 投入으로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없어 새마을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 대상자들이 새마을 사업을 위해 하루에 들인 시간을 퍼센트로 환산해 달라고 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산성을 위한 投入은 時間의 投入(time input)만을 그 지표로 생각한 것이 된다. 반면에 產出로는 피조사자들이 지금까지 새마을 事業에 종사해 오면서 느낀 滿足度로 5點 尺度에 스스로 評價해 듣고 했다(self-anchoring scale). 이것 조차도 엄격히 따지면 產出은 아니다. 새마을 事業의 產出은 보다 物理的인 것으로 토담개조, 지붕개량, 종자개량, 교량건설 등등으로 우선 可視的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모두의 集合된 資料(aggregate data)를 하나의 指標(single index)로 換算하는 번잡을 피하여 滿足度만을 產出로 본 것이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의 精神的・心理的 側面의 강조를 누누히 주장하는 간접적 시위이기도 하다. 여하튼 여기서 行屬變數는 滿足度(事業產出)와 時間(事業投入)의 比率로 계산했다.

### 3. 2 資料의 分析

두 가지만 紹介한다. 하나는 새마을 사업의 内容에 관한 것과 다른 하나는 영향변수의 기여도에 관한 것이다.

1.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에 主力한 部門은 주로 (1) 마을 안길 확장 (2) 公共福祉施設 (3) 所得求心施設 (4) 共產基盤施設 (5) 共同利用施設 (6) 기타 환경 개선 등으로 大別된다.<sup>(13)</sup> 調査에서는 其實 補面接者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主力한 내용과 앞으로當為的인 内容 가운데 精神的・心理的 내용이 강조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實際로 나타난 결과에는 지금까지 傾注한 部門과 앞으로의 規範的 내용에도 똑같이 精神的・心理的 面이 강조되고 더욱이 財政的 의미로의 福祉만이 아니라 環境改善・保健衛生에 대한 規念이 강한 것을 보면 새마을 事業 자체를 올바르게 認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事業 내용의 도수 분포도이다. 과거와 미래를 비교한 것인데 반드시 이치하는 항목을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은 質問項目이 開放式 質問(open-ended question)이어서 다시 취합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분포표의 숫자 자체도 정

(13) 金仁植, 「地域社會開發運動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2, pp. 6-31.

확한 係數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미심한 감이 없지 않다. 이 밖에도 이 間項은 다른 變數와 관련지워 그 영향을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分析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만 兩者的 비도와 비율만을 소개한다.

〈表 1〉 새마을 사업의 내용

△ 금까지 주력한 부문			<N=166> 앞으로 주력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문		
	F	%	F		
1. 소득증대사업	57	34.3	27.1	45	소득증대사업 1.
2. 사회간접자본	29	17.5	12.0	20	사회간접자본 2.
3. 환경개선·위생사업	40	24.1	17.5	29	환경개선·위생사업 3.
4. 청소개발	15	9.0	16.3	27	검소한 생활교육 4.
5. 생활관습개선	8	4.8	12.9	20	식생활개선 5.
6. 부녀그룹지도	17	10.3	15.1	25	공회당·탁아소유치원 6.

이상의 내용은 물론 새마을 사업 내용의 전체가 될 수 있으며 그一部에 不過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몇몇 사업 종사자를 통해서 알아낸 소식에 의하면 사업 내용의 質的 變化가 암시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곧 사업의 경신적 효과이다.

2. 끝으로 生産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分析이다. 生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다섯 가지로 생각하고 이들을 複回歸分析에 의해 계산했다. 물론 直線이라는前提 (linear assumption) 下에서 回歸方程式부터 소개하면,

$$Y = 3.7X_1 + 2.5X_2 + 1.6X_3 + 1.8X_4 - 0.2X_5$$

이 方程式은 첫째로 住民相互間 및 官民間의 의사소통의 원활이 새마을 사업의 生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둘째로 豐算과 技術은 否의 寄與를 하는 것으로 나눠지고 있다. 셋째로 남여지 세 變數는 그다지 커다란 차이 없이 生產性을 설명하는데 공헌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意思疎通의 문제가 지적된 것은 事業推進者の 指導性이 輕視된 것과 對照를 이룬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官民의 사업에 대한 적극성은 지도성에 별로 상관없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장애가 되는 것이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는 사실이고 사업의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 이 관계가 원활해 진다면 쉽게 자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낳아진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事業內容決定에 대한 參與機會의開放性이라는 變數의 寄與度이다. 이것이 指導性 보다 높은 것은 역시 「參與」의 문제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증좌일 것이다.

事業推進者の 動機와 意欲이 둘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主役(actor)의 價值觀과 態度, 이의 未來指向性에 대한 점을 높이 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태여 D. McClelland

의 理論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그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豫算: 技術의 위치는 아무래도 그 重要성이 크게 인정되는 것이면서도 否의 方向이 나타난 것은 우선 의사소통의 경우와 똑같이 유추가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 과연접자의 습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應答者는 흔히 첫째 문항에 답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중 것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추측은豫算과 技術의 중요성을 지적한 응답자의 生產性에 대한 滿足度나 投入力이 적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結果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쨋든 분명해 진것은 비록 그 代表性은 약하겠지만 [새마을 사업의 生產性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變數는 통털어 「긴밀한 유대에서 비롯되는 參與」의 문제라고 결론짓고 싶다. 끝으로 獨立과 從屬變數간의 相關係數  $r=.72$ 이며 따라서  $R=51.8$ 이 되므로 獨立變數는 從屬變數를 51.8% 만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